담그고 후작물로 연맥만 파종해 건초를 하려고 하는데 건조가 문제일 것 같다.

볏짚도 지역에서 소량 구입하는데 수거 시기에 기상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형적으로 산이 높아 서리가 빨리내려 건조상태가 불량 해서 볏짚은 주로 전라도에서 구입해 왔는데 작년가을 볏짚수거 시기에 기상악화로 볏짚이 없어 각처에서 60톤을 구입했는데 건조상태가 보통인것이 40톤 약간 불량한것이 20톤이었다.

그나마도 요즘은 없는가보다. 주문을 한달전에 했는데도 안 오는 것을 보니…

어렵게 알팔파 수입 건초를 30톤 구입해 급여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급이 원활치가 못했다. 시기적으로 조사료 사정이 제일 안좋은 8~9월 볏짚도 충분치 못하고 사일리지도 떨어지고 수입건초도 구입할 수 없고 그러니 농후사료급여 비율이 높아진다. 소는 조사료가 주식인데 농후사료가 주식이 되니 그렇잖아도 무더위에 지친 우군들에게 스트레스를 더해 주는 것 같아 미안함을 느낀다.

하루빨리 조사료 증산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하겠으며 수입건초도 농가들이 손쉽게 구입하여 급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소들한테 요긴하게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2㏊되는 초지가 있어 다행스럽다. 태양이 뜨겁게 내려쏟아질때면 시원한 그늘목 아래서 내려 오기 싫어하는 우군들! 마리수에 비해 초지 면적이 적어 임대해서라도 초지조성할 야산이나 넓은 유휴지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겨 본다.

윤 민 호
지리산낙농축산업협동조합장

정부의 조사료정책 변해야 된다

조사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많은 투자와 연구, 농가의 피나는 노력이 병행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소가격의 연착륙 정책을 쓰는 것처럼 우선 당장 필요한 조사료의 수급을 축산농민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근채류의 수입쿼터를 당장 풀어줘야 할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하루앞을 내다 볼 수가 없다.

지난해 노동법 파문으로 노사분규가 휘몰아쳐 한차례 홍역을 치르고 이제는 다 지나가나 했더니 한보사태다, 진로사태다, 기아파문이다, 내일은 또 무엇이 터질까 조바심 속에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다. 경제부분의 모든 부분이 어려운 것처럼 요즈음 양축농민들의 얼굴도 찌그러질대로 찌그러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한우 가격은 "끝이 어디인가?"라는 용어가 어울릴 정도로 내려가고 있고, 암소가격은 이미 송아지 생산의 의욕을 완전히 꺾을 수준으로 내려왔고, 숫소는 그나마 수매에 의존하고 있어 다행이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과연 수매가 계속될까? 조바심이 앞서며 양계는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 수준이 상당기간 계속되고 있으며 그나마 돼지값만이 지난해 많은 자돈의 폐사와 대만의 구제역파동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 현재 우리의 축산 실정이다.

특히 소 부분의 앞날은 정말로 소를 키워야 하는건지, 지금이라도 치워야 하는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것같다. 정말 한우의 정부 제시가격이 적정가격이라면 송아지 가격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 또 송아지 생산농가는 송아지를 계속 생산할 수 있을까? 어느것 하나 명쾌한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다.

더구나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쇠

고기의 소비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이 앞서는데 내년도 정부가 처리해야될 쇠고기량은 MMA물량 18만t에 지금 비축해가고 있는 수매육을 합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만t 이상이 될것으로 생각되어 과연 내년도 소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산업이 세계가 개방화 되어 가는 마당에 시장경제를 무시한 정부의 일시적보호는 장기적 측면에서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착륙정책은 농민들에게 시장가격으로 급속히 이행되는데 따른 충격을 줄여준다는데서 의의를 찾아서는 안된다.

시장가격으로 가는데 따른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즉 정부가 소를 수매해가며 가격을 지지해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시장가격으로 소가격이 형성되어져도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 주는데 더욱더 많은 농민과 정부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많은 자금의 지원에 의해서 한우농가나 젖소농가가 규모를 늘리고 축사를 현대화, 기계화시키고 인건비 등 여러부분에서는 현저한 경쟁력이 생긴것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또한 축산업의 원가를 가장 많이 좌우하는 사료 부분에 있어서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의 면세라든가 또는 사료공장의 신고제에 의한 설립의 자유화 조치 등은 정부의 축산업에 대한 진일보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소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는 아직도 전혀 손도 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조사료 부분이다.

소산업에 있어서 조사료 부분은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침이 없을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요즈음 가끔 고급육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나라의 한우산업도 고급육 체제로 나아가서 외국의 수입육과 차별화 되어져야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정부의 정책방향도 이방향인 것 같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조사료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급육은 나오지 않는다. 조사료문제를 해결치 않고 고급육을 만들어 낸다는 것과 젖소의 년간 산유량을 8천kg, 9천kg까지 올린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일에 불과하다.

작년도 말 계속된 일기불순으로 인하여 논 바닥의 볏집을 수거하지 못하여 많은 소사육 농가들이 소를 팔거나 볏집을 kg당 250원씩 사서 먹이는 웃지못할 희극까지도 벌어졌었다.

조사료의 문제는 토지와 노동력과 기술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해결이 되나 우리나라 현재의 여건상 이 문제가 한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

예를들면 남쪽지방에서 논에 벼를 심기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심어서 수확하고 벼를 재배하면 많은 양의 조사료를 얻을 수 있겠지만, 벼를 심는 시기가 점점 더 빨리 심는 쪽으로 벼농사의 패턴이 진행되어져 논을 가진 농가가 축산농가에 겨울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논을 임대하거나 사료작물을 심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조사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많은 투자와 연구, 농가의 피나는 노력이 병행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소가격의 연착륙 정책을 쓰는 것처럼 우선 당장 필요한 조사료의 수급을 축산농민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근채류의 수입쿼터를 당장 풀어줘야 할 것이다.

이를 쿼터로 묶어놓고 쇠고기 시장을 풀어 놓는다는 것은 링에서 한쪽 권투선수의 양손을 묶어 놓고 게임을 시키는것과 같은 것이다.

우선 쿼터를 풀어 소사육 농가에 조사료의 원활한 공급조건을 갖춰주고 조사료도 시장가격에 맞는 조사료를 농민이 생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는 조사료의 증산정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될 것이다.

장기적 측면에서 쇠고기가 시장가격에 맡겨지면 우리나라의 소사육 농가는 조사료를 자가생산하지 않고는 생산비를 맞출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을 것이고 또한 농민들도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 스스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산업이 지탱되려면 조사료 문제의 해결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양축농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랄뿐이다.